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각 사람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소: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 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기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한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시요.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김성수 김동욱 정규일 등 388,110원
황인운 50,000원

총 누적금액 41,543,050원



통영 보건소와 자생원 원생들이 6월 19일 열린 통영 미래사 산사음악회에서 휠체어 댄스와 수화 노래를 공연하고 있다.

휠체어 댄스·수화노래 박수갈채

통영 미래사, 장애우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성황

산사의 밤은 아름답다. 게다가 울울창창한 전나무 숲을 타고 신비한 오키리나 소리가 흐르고 휠체어를 탄 장애우들과 일반인들이 나란히 앉아 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면 산사의 아름다움은 배가된다. 장애우와 함께 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던 6월 19일, 통영 미래사(주지 여진의 풍경이 짝이됐다.

"장애우들을 진정 특별한 친구로 맞이하기 위한 음악회"라는 주지 여진 스님의 말씀처럼 이날 음악회는 일반인과 장애우들이 만나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마음을 나누고,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리였다.

효봉 스님이 수행했던 토굴터가 있는 통영 미래사가 장애우들과 일반인들의 문화·복지 도량을 지향하며 올해로 세 번째 개최한 산사음악회. 이날 음악회에는 통영보건소와 자생원 등에서 70여 명의 장애우들과 일반인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한 저녁 7시경에 시작된 공연은 미래사 합창단인 자

랑합창단의 찬불가공연, 클래식 기타 연주, 오키리나 연주, 사물놀이 공연, 진의장 통영시장의 시낭송 등에 이어 '한계령'의 가수 양희은 씨의 무대에 이르자 절정에 달했다. 산사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대웅전 행화와 불상이 조화를 이룬 무대는 조명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러나 그 어떤 무대보다 화려하게 빛났던 무대는 바로 장애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선보인 휠체어 댄스와 수화 노래. 통영 보건소와 자생원 원생들이 꾸민 이 무대에서는 포크댄스를 변형시킨 휠체어 댄스와 수화 노래가 선보여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휠체어 댄스팀의 일원으로 무대에 오른 박화석(37·지체장애) 씨는 "절여 열리는 산사음악회에는 처음이라 너무 기분이 좋다. 자주 자주 이런 음악회가 열렸으면 좋겠고 좀 더 연습을 해서 다음 공연 때는 더 멋진 춤을 보여주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함께 참석한 자생원 임영애 실장은 "표현은 잘 안되지만 자생원 원생들

이런 음악회에 한번 참석하거나 관람을 하고 나면 활력소가 되어 재할 의지가 높아진다"며 "장애우를 배려하며 음악과 춤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음악회를 열어주신 여진 스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통영에서 참가한 최미영 씨도 "장애우들을 위한 음악회여서 그런지 모든 음악이 더 감동적으로 들리는 것 같다"며 "이런 음악회가 평소 장애인들에게 무관심했던 나를 돌아보고 장애를 딛고 일어설려는 이들에게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병원 봉사활동으로 병들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온 여진 스님은 통영 미래사에 장애우들을 위한 화장실과 휠체어 통로를 설치할 정도로 장애우들에겐 특별한 친구다. 여진 스님은 "장애우들은 우리들이 손을 내밀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장애우들이 기다림에 지쳐 포기하기 전에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자"고 거듭 강조했다.

글·사진/통영=천미희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노숙자 쉼터 '세계 보현의 집' 식사봉사자들

어머니 손맛까지 담았어요

서울역 너머 조용한 주택가가 늘어선 서계동. 겉보기에는 다른 주택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노숙인 쉼터 '보현의 집'이 동네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 식구들이 각자의 일터에 갔다가 하나 둘 돌아오는 오후 5시, '보현의 집'에서도 어느 집에서 그러한 것처럼 저녁 갖는 냄새가 흘러나온다.

틀림없는 어머니의 국 냄새, 반찬 냄새, 지하에 마련된 주방에서 일하는 김순옥(54) 조리사와 벌써 6년째 봉사활동 중인 임정수(56)·윤문자(58) 보살의 손맛이 함께 어우러졌다.

이렇게 저렇게, 모두 가슴에 담은 사연은 다르지만 보현의 집 식구들 모두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식구들에게 집에서 늘 하던 식사 준비로 즐거움을 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보현의 집'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6월 22일, 윤문자 보살은 계속되는 봉사활동에 오른손이 통통 부었다. 그래도 봉사는 쉴 수 없다. 한 손이라도 일을 거들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다. 윤 보살과 함께 지속적으로 봉사할

중에 나선 임정수 보살은 한 '보현의 집' 식구들에게 감동을 받아 계속 봉사 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어느 아저씨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조촐하게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분들이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지만은 않구나 싶더라고요."

조리원으로 일하고는 있지만 봉사자의 뜻까지 특별히 해내고 있는 김순옥 보살도 여기에 한미다 거둔다.

"아저씨들이 참 순수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지내다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중에 꼭 불고기 거러도 사오고 떡도 해주고 그래요."

노숙인 하면 게으르다는 사회적 인식, 옆에서 지켜본 봉사자들은 '보현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만큼은 자립하라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다. 그런 편견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다.

봉사자들이 글방 지은 밤에 정성으로 요리한 반찬이 가득한 세계 '보현의 집'에는 식구들을 믿어주는 봉사자들의 마음이 있어 늘 희망의 기운이 샘솟는다. 글·사진=김경진 기자



식사 봉사자들이 6월 22일 갖 지은 따뜻한 저녁으로 노숙자 쉼터 '세계 보현의 집' 식구들을 대접하고 있다.

세탁기·수건·옷 후원해 주세요

자활을 꿈꾸는 노숙인들을 돕는 서계동 '보현의 집'에 요즘 걱정이 하나 있다. 세탁기가 고장 나 너무 낡기 때문에 늘어난 빨랫감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자

들은 "세탁기도 필요하지만 입소할 때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 수건이나 옷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다. (02)711-7735

제21기 불교전문호스피스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는 내가 죽음에 직면하도록 돕는데 만족을 느끼며 나의 요구를 이해하는, 민감하고 지각있는 사람에 의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로스피스 윤리 중 —

교육인내

- 일 정 / 2005년 7월 24일(일요일) ~ 2005년 7월 31일(일요일) 7박 8일
- 내 용 / 24개 호스피스 전문과목과 20여명의 최고경사선, 임상과 이론을 겸한 전문인력양성 집중교육
- 장 소 / 정토마을
- 대 상 / - 스님, 재가 법사 및 포교사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분
- 불교인으로서 상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인 원 / 남·여 35명
- 교 육 비 / 29만원 (학인스님 50% 할인)
- 원 서 접 수 / 홈페이지접수, 전화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접수받은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육생 선발은 1차서류 심사후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원 서 마 감 / 2005년 7월 15일 도착분까지
- 문 의 처 / 정토마을 사무국 총책 형원근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043) 298-2258(대) FAX. 043) 298-1457
http://www.jungtoh.com e-mail: jungtoh2@jungtoh.com

☞ 불교호스피스연망: http://cale.daum.net/BHU

함께 할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 모집분야 - 간호사 0명

▶ 불교전문 호스피스 교육에
각계 스님 및 불자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 BULLHIVE CARE CENTER
정 토 미 술
정토미술은 호스피스 교육의
중요 요소이며 불교적 가치를 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재)정토사관자재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실�크로드의 길 중에 하나인 파미르고원은 수많은 서역 구법승들이 넘나들던 전법과 구법의 길입니다. 그 옛날 달마대사가 넘었다는 총령도 파미르고원을 말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왕이 현재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을 정복하였고, 고대 그리스 문명과 접목으로 간다라 불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쇼카 대왕이래 불교를 부흥시킨 카니시카 왕이 수많은 사원과 불탑을 세운 곳도 간다라입니다. 불교 최고의 부처님 고행상은 파키스탄의 라호르박물관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상과 사원 등 간다라와 파미르고원, 중국의 우루무치까지 고대 유적을 따라 손레하는 전법의 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출발일: 1차 7월 22일 출발 - 8월 4일 도착, 2차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알핀디-탁실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카슈카르-쿠차(기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수미산 순례 24일

- 출발일: 8월 23일 출발 - 9월 15일 도착
- 일 정: 인천-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계왕국-마나사로바-파양-사가-장무-카투만두-인천

문의 및 접수: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 실�크로드와 수미산 여행은 불교를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